

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수원 재정정책 방향 제언

연구 기초

- ① (연구배경) 경제 양극화, 소득분배 악화, 경제 불확실성 확대
 - 저출산·고령화, 코로나19, 노동시장 분절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
- ② (연구방법) 지니계수 추정을 통한 소득격차 실태 확인
 - 한국, 수원시 및 유사자치단체의 소득격차 실태 분석,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, 한계효과 분석
- ③ (연구목적) 정부·지방재정지출, 사회복지분야지출, 지방세수 증가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
 - 지니계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실효성 검증

정책 방안

- 수원시 지니계수는 한국 총 지니계수보다 낮은 수준, 전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추이
-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, 수원시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역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반면, 금융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는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 긍정적 역할
- 수원시의 경우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, 재정지출 등 기타 변수들은 지역 소득격차를 오히려 확대

- ① 디테일한 노동 및 임금정책 수립,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및 금융소득으로의 전환방안 모색, 사회보장제도 등 이전소득 활용 필요
- ② 재정지출 방향이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에 맞추어져 있는 결과로 분배를 위한 방향성 고려 필요
- ③ 충분한 세수확보로 세수가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로 이어지도록 세수 확보 노력 필요
- ④ 높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불구 소득격차를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 필요
- ⑤ 단기적인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·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추진 필요, 사업 방향성에 점진적 전환 및 새로운 사업 추진시 장기적 관점의 격차 완화 방향 고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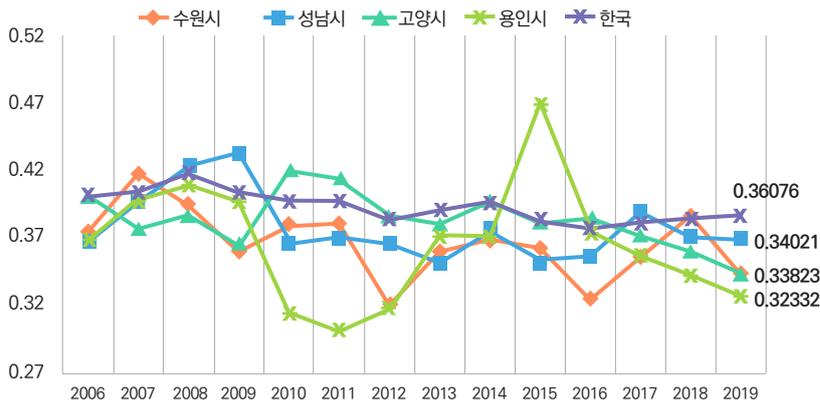
1 수원시 소득격차 현주소

1 수원시 및 한국,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*

-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니계수는 한국 지니계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추이
- 수원시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.338로 2018년 0.379 대비 0.041p 하락, 전기간 평균 0.360, 국내 기준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,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 개선 추이
 - 전 기간(2016~2019) 평균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고양시(0.375),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(0.323) (2019년에는 성남시(0.361)가 가장 큼)
 - 용인시의 경우 지역 소득 격차가 정책 및 대·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

* 지니계수란? 소득불평등 계수, 0-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

수원시 및 주요 자치단체 지니계수 추이



2 수원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

-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높아질 경우 지역 소득격차 확대되는 방법, 금융소득 및 이전소득의 증가는 지역 소득 격차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

수원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

Source	Sk	Gk	Rk	share	% Change
근로소득	0.935	0.3748	0.981	0.9645	0.0294
금융소득	0.0043	0.9489	0.1986	0.0023	-0.0020
부동산소득	0.0192	0.9686	0.4996	0.0261	0.0069
이전소득	0.0414	0.8146	0.075	0.0071	-0.0343

주: Sk : 소득원천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, Gk: 해당 소득 지니, Rk: 총 소득 내 해당 소득 지니상관계수, Share : 해당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(합= 1), % Change: 각 소득 1% 증가시 지니계수 % 변화, 한계효과, 2019년 기준

1 데이터

- 지니계수 추정 : 한국노동패널 9차~22차 년도(2006년~2019년) 데이터,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+ 금융소득 + 부동산소득 + 사적·공적이전소득,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 가구 소득
- 전국 SVAR 분석
 -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 추정치, 중앙정부 총 지출(재정지출), 사회복지분야 지출, 총 세수(결산 세입), GDP 연간 데이터, 지니계수 각 변수 실질변수(CPI, 2015=100), 로그차분
- 수원시 및 유사규모 자치단체 ARDL 분석
 - 지역별 지니계수(GINI_COEF), 일반회계 지방세수입(LOCALTAX_REV), 일반회계 세출결산액(G_EXPEN), 사회복지분야 세출 결산액(G_SOCIAL), GRDP, 2006년~2019년 연간데이터(GRDP 2018년까지), 명목, 로그차분

2 모형

- 패널 시차분포 모형(패널 ARDL: 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)
 - 기본 패널 OLS모형에 1차 시차를 부가한 차분 ARDL(1,1,1,1,1) 모형

$$\Delta Y_{it} = \alpha + \underbrace{\sum_{i,j=1}^{k,n} \beta_1 \Delta Y_{it-j}}_{\text{[단기]}} + \underbrace{\sum_{i,j=1}^{k,n} \beta_2 \Delta X_{it-j}}_{\text{[장기]}} + \phi_1 Y_{t-1} + \phi_2 X_{t-1} + u_{it}$$

Y_{it} = 지역별 지니계수 변화

X_{it} = 지방재정지출 변화, 사회복지분야지출 변화, 지방소득세율변화, GRDP 성장

i = 4개 유사규모 자치단체(수원시, 성남시, 용인시, 고양시)

$\beta_{1,2}$ = 단기동태영향, $\phi_{1,2}$ = 장기동태영향

u_{it} = 오차항

- SVAR(Structural VAR) 모형

- 일반화된 SVAR모형, 1차시차, 상박삼각 장기 제약, 변수순서(order) 그랜저검정 적용 총세수, 정부지출, GDP, 사회복지분야 지출, 지니계수 순

$$AX_t = BX_{t-1} + u_{it}$$

$$\lim_{s \rightarrow \infty} \begin{pmatrix} \Delta \text{총세수}_{t+s} \\ \Delta \text{정부지출}_{t+s} \\ \Delta \text{GDP}_{t+s} \\ \Delta \text{사회복지분야지출}_{t+s} \\ \Delta \text{지니계수}_{t+s} \end{pmatrix} = D \varepsilon_t = \begin{pmatrix} d_{11} & 0 & 0 & 0 & 0 \\ d_{21} & d_{22} & 0 & 0 & 0 \\ d_{31} & d_{32} & d_{33} & 0 & 0 \\ d_{41} & d_{42} & d_{43} & d_{44} & 0 \\ d_{51} & d_{52} & d_{53} & d_{54} & d_{55} \end{pmatrix} \begin{pmatrix} \varepsilon_t^g \\ \varepsilon_t^s \\ \varepsilon_t^t \\ \varepsilon_t^s \\ \varepsilon_t^{gn} \end{pmatrix}$$



1 한국 정부 재정지출

〈상관계수 분석〉

- 국내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
- 세수 증대는 지니계수를 높여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
-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재정지출의 정책 방향성이 소득격차 완화에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
- 국내 변수의 경우 국내총생산(GDP) 확대만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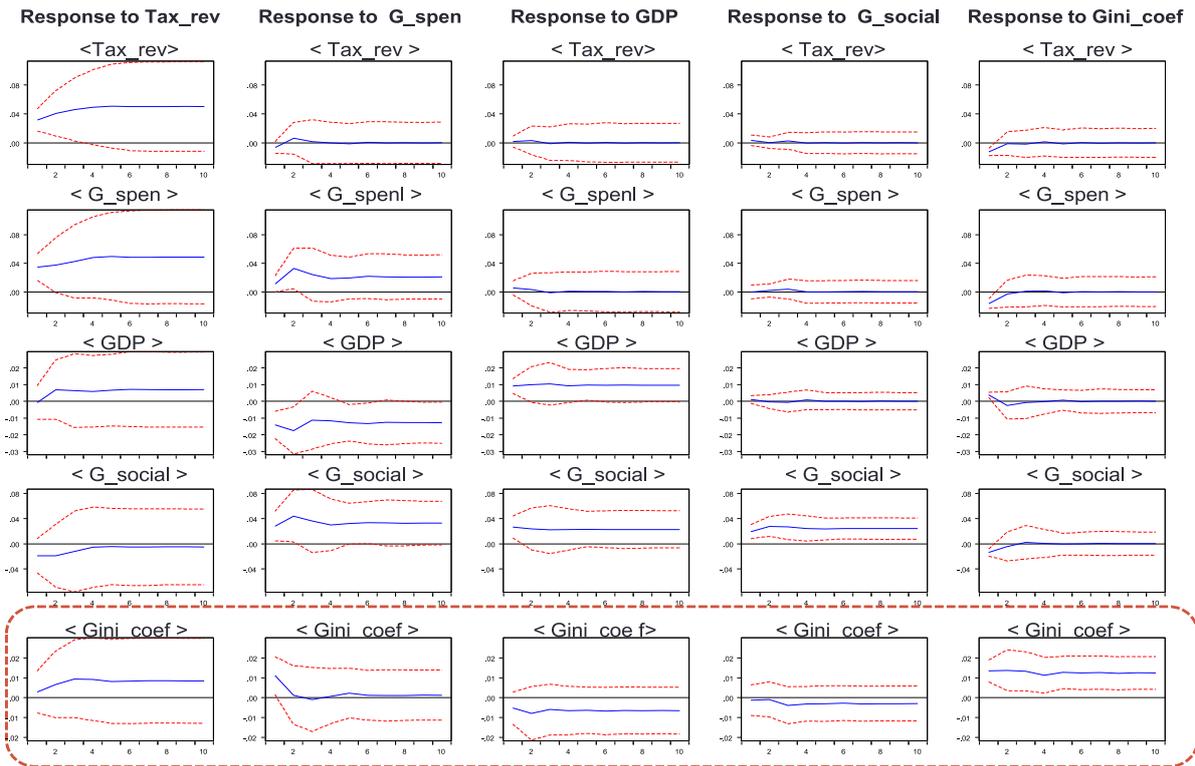
전국데이터 SVAR 상관계수

Type of shocks		Coefficient	Std. Error	z-Statistic	Prob.
Tax_rev (총세수)	To Tax_rev	0.050005	0.010207	4.898957	0.0000
	To G_spen	0.048497	0.011535	4.204270	0.0000
	To GDP	0.006865	0.004821	1.423912	0.1545
	To G_social	-0.005193	0.013363	-0.388619	0.6976
	To Gini_coef	0.008358	0.004489	1.861697	0.0626
G_spen (재정지출)	To G_spen	0.020511	0.004187	4.898978	0.0000
	To GDP	-0.012854	0.003794	-3.387675	0.0007
	To G_social	0.032530	0.011548	2.816960	0.0048
	To Gini_coef	0.001165	0.004146	0.281091	0.7786
GDP	To GDP	0.009495	0.001938	4.898979	0.0000
	To G_sicial	0.022456	0.008262	2.718124	0.0066
	To Gini_coef	-0.006680	0.003908	-1.709283	0.0874
G_social (사회복지분야 지출)	To G_social	0.023810	0.004860	4.898979	0.0000
	To Gini_coef	-0.003096	0.003607	-0.858157	0.3908
Gini_coef (지니계수)	To Gini_coef	0.012303	0.002511	4.898979	0.0000

〈충격반응 분석〉

- GDP 상승은 단·중·장기 전주기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
- 총 지출(재정지출) 확대는 초기 지니계수를 높이는 반면,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중·장기로 갈수록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향성(유의성은 없음)
- GDP 성장 이외에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로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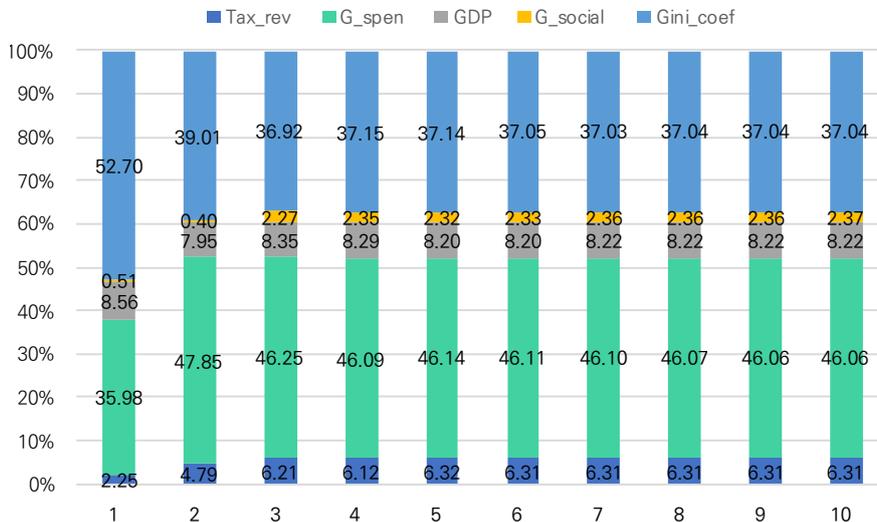
전국 데이터 누적 충격반응



〈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(FEVD :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)〉

- 전국 지니계수의 경우 단기적(1기)으로 지니계수 자체의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기(2년) 이후 부터는 재정지출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
- 상관계수 및 충격반응분석 결과 국내 재정지출은 소득격차 완화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지니계수의 변화에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의미
- 국내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경우 소득격차 완화에 유의성 있는 변화 예상

전국 지니계수 분산분해(FEVD)





2 유사규모 자치단체 지방재정지출

- 수원시를 포함한 4개 유사규모 자치단체 패널 데이터의 ARDL 장/단기 분석 결과
- 단기효과
 -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4가지 변수 중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확인되며 두 변수 모두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
 - 지방세수의 증가는 지역소득 격차를 확대시키고 GRDP 증가는 지역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
- 장기효과
 -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단기에 지역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기로 갈수록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
 - 격차 해소를 위한 단기적 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장/단기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이 필요, 현 사업 방향성의 점진적인 전환 필요성 시사
 - 새로운 사업의 추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,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

지방자치단체 시차분포모형 추정 결과

Variable	Coefficient	Std. Error	t-Statistic	Prob.*
단기				
D(DLNG_EXPEN)	-0.251262	0.124730	-2.014440	0.0576
D(DLNG_SOCIAL)	-0.130824	0.034692	-3.771003	0.0012
D(DLNLOCALTAX_REV)	0.355595	0.213729	1.663770	0.1117
D(DLNGRDP)	-0.154003	0.246356	-0.625125	0.5390
C	-0.037548	0.007498	-5.007516	0.0001
장기				
DLNG_EXPEN	0.688798	0.227536	3.027203	0.0067
DLNG_SOCIAL	0.211587	0.060649	3.488691	0.0023
DLNLOCALTAX_REV	-0.397392	0.252753	-1.572254	0.1316
DLNGRDP	-0.091857	0.153958	-0.596637	0.5574



- 4개 유사자치단체 패널 ARDL의 단기 횡단면 분석 중 수원시 영향만을 분석한 결과

단기적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사회복지 지출만이 긍정적 영향

-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낮추는데 사회복지분야 지출만이 긍정적인 영향, 그 외 지방재정지출, 지방세수, GRDP 변수는 오히려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
 -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및 이전사업의 규모가 격차를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임을 시사
 - 반면, 사회복지분야 지출 이외의 재정지출은 일부 계층의 소득 증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
- ⇒ 재정지출의 방향이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결과 도출

수원·성남·용인·고양시 단기 횡단면 상관분석

Variable	수원시		성남시		용인시		고양시	
	Coefficient	Prob. *						
D(DLNG_EXPEN)	0.115	0.0131	-0.425	0.0007	-0.305	0.0118	-0.391	0.0051
D(DLNG_SOCIAL)	-0.080	0.0000	-0.098	0.0001	-0.113	0.0001	-0.233	0.0000
D(DLNLOCALTAX_REV)	0.903	0.0000	-0.062	0.2771	0.472	0.4395	0.109	0.2815
D(DLNGRDP)	0.416	0.0013	-0.594	0.0003	-0.536	0.0086	0.098	0.1828
C	-0.046	0.0000	-0.020	0.0000	-0.030	0.0002	-0.053	0.0000

GRDP 효과

- 특히 GRDP 증가시 지역소득격차 확대 결과, 수원시 경제구조의 특이성 보이는 결과
 - 경제성장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균형한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
 - 경제성장이 일반적으로 소득격차 완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상이한 결과
-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모습

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성 재정립 필요

- 지방소득세수 확대가 수원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은 소득세의 누진도가 낮은 데 따른 결과로 예상
- 성명재(2015)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가 작아 세수가 충분히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고려 가능
- 수원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와 원인을 고려한 수원시 경제 및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 재정립 필요

* 누진제 : 소득금액, 사용량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, 높은 금액의 이용료 등을 부여하는 제도

참고문헌

- 성명재(2015),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,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자료

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수원 재정정책 방향 제언

※ 이 자료는 양은순. 2021. 『정부 및 지방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』 연구보고서를 수정하여 재정리한 것임.

양은순 연구위원 nell7508@suwon.re.kr / 031-220-8068
성수현 위촉연구원 sushyun@suwon.re.kr / 031-220-8083



발행인 김선희
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
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
 Tel. 031-220-8001
 Fax. 031-220-8000, 8060
 www.suwon.re.kr

※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.